

# 씨방의 조형, 여래의 모습으로 현신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들린 용어 바로잡기

석류(石榴)→씨앗이 가득 찬 씨방→보주가 가득 찬 씨방 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 자리, 우주에 충만한 영기가 연꽃모양으로 조형화함에 따라 현실에서 보는 연꽃이 고차원으로 승화된 영기꽃(靈氣花)임을 밝혔다. 따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는 영기꽃의 씨앗이 보주의 개념으로 역시 승화되었음을 충분히 설명해왔다.

즉 연꽃이 영기꽃으로 승화하였으니 연꽃의 씨앗들도 보주들로 승화되어야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 씨앗에서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다는 것, 더 나아가 씨앗이 보주로 승화하여 그 보주에서 여래와 보살이 화생한다는 진실(연꽃→영기꽃, 씨앗→보주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문자로 기록된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조형미술 자체에서 찾아내야 했었는데 마침내 미혹의 강을 건너 저편의 강변에 이르렀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그 이후 잇따라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류모양이 그림에 매우 많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 그것이 석류(石榴)라고 생각했는데[여기까지가 사실: fact], 10여 년 전에 그 석류 안의 붉은 씨앗들이 보주가 된다고 확신하고 매우 흥분한 적이 있었다. 보주의 본질에 대하여 끊임없이 추구하여 가는 동안, 연꽃=영기꽃의 씨앗이 생명의 근원이므로 씨앗이 승화하여 보주가 되어간다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여래나 보살이 보주에서 화생한다'는 관념이, '여래와 보살이 씨방에서 화생한다'는 조형과 만나 당시 매우 고양된 상태였었다.[여기까지는 진리: truth] 생각이 아니라 명상이었으리라.

석류를 상점에서 사서 열어 보았다. 선명하고 투명한 빨간 유리알 같은 씨앗들을 보고 환희적이었다. 너무도 아름다워서 가슴이 환히 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석류라는 특성의 씨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씨방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 이후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석류가 아니고 만물생성의 근원인 보주가 무량하게 가득 찬 씨방이 씨방 역시 승화하여 조형적으로 보주(보주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긴다) 혹은 만병(滿瓶)이 됨임을 안 것은 엄청난 미술사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석류는 석류가 아니고 보편적 개념인 씨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형미술에서는 현실에서 보는 꽃은 없다. 비록 똑같다고 하더라도 승화된 영기꽃으로 보아야 한다.

통도사 박물관에서는 부석사 괘불을 다음 달부터 전시할 예정인데 연구실 벽에 붙여있는 포스터에서 석가여래의 처음 보는 광배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그림 ①, 그림 ②) 놀란 까닭은 광배에 수많은 씨방이 영기화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기문에서 연꽃모양 영기문이 화생하고 그 영기꽃에서 큰 씨방 주머니가 화생하고 그 씨방에서 큰 빨간 보주가 하나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가 아니고 무량한 보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무량한 보주들이 계속 생겨나서 확산하고 있다. 만일 연꽃이라면 씨방이 원추형이어야 하는데 주머니 모양이니 연꽃이 아님이 분명하지 않은가!(그림 ③) 단청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을 띤 조형이므로 따라서 여러 가지 목부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도상이 있다. 이것을 '석류동'이라

용어로 단청 연구자들이 여러 책에서 쓰고 있으며 건축학 교수들과

학생들도 널리 쓰고 있지만, 이미 내가 <한국미술의 탄생>(술출판사, 2007년, pp.495~562)에서 그 주된 조형이 석류가 아니고 씨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하여 그 심원한 상징성을 밝혀서 장편의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그림 ④)

우리나라 사찰건축이나 궁궐건축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석류동'이 용어는 이제부터 쓰면 안 된다(은 씨방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오는 가장 중요한 조형인데 그와 똑같은 조형이 바로 부석사 괘불의 중심에 있는 석가여래의 광배에 감히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조형이 도대체 왜 광배에도 대담하게 쓰이고 있는 것일까? 광배에까지 단청에서와 같은 조형이 쓰이고 있다는 것은 '우주의 축소인 건축'과 역시 '우주에 충만한 여래'와의 관계를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다. 두 가지가 모두 만물생성의 근원자이다. 법계(法界)에 보주가 충만하듯이, 여래 자체가 보주가 충만한 거대한 보주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씨방=보주의 조형과 여래의 조형이 같지 않은가! 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를 작성하고 있는 오늘이 개천절이어서인지 씨방의 조형이 여래와 같은 모습으로 현신하는 극적인 광경이 나타나는 듯하다. 이 모든 과정을 짧은 글로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제 여러분은 조형언어를 배웠으므로 스스로 읽어보세. 그러면 이런 조형은 언제 어디서 비롯하였을까요?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 부석사 괘불의 석가여래 광배



그림 ② 광배 부분



그림 ③ 씨방의 영기화생 채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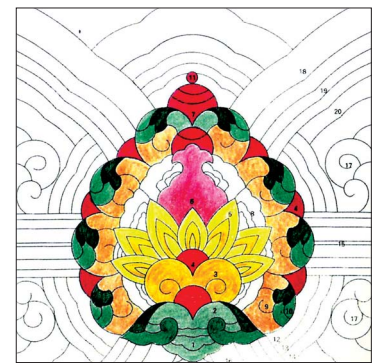


그림 ④ 학계에서 쓰는 석류동의 6년 전 채색분석

## 藥 이 되는 사찰음식

## 송이 향 솔솔 버섯전골 일품



### 모듬 버섯 전골

△재료(4인 기준)

- 송이버섯 2개, 표고버섯 4장, 느타리버섯 50g, 팽이버섯 50g, 무 100g, 당근 50g, 미나리, 청홍고추 약간씩
- 유부주머니

- 유부 10장, 두부 50g, 청홍고추 1개씩, 다진버섯 4큰술, 당면 50g, 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깨소금 1큰술, 미나리 약간
- 맛국물 5컵

- 물 6컵, 다시마 2조각, 무 100g, 표고버섯 1개, 청양고추 1개, 국간장 1큰술, 소금 1/2큰술

### △만드는 법

- ① 냄비에 맛국물 재료를 넣고 1시간 정

도 불린 후 끓인 후 간장,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 ② 각종 버섯은 잘게 찢거나 저며 썰는다.
- ③ 유부는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구어 윗부분을 잘라낸다.
- ④ 유부에 들어갈 재료는 잘게 다진 후 간장, 참기름, 깨소금을 넣어 밑간을 한 후 유부에 채운 뒤 데친 미나리로 묶는다.
- ⑤ 전골냄비에 재료를 돌려 담고 국물을 부어 끓여 낸다.

### 산수유 연근조림

△재료(4인 기준)

- 연근 200g, 산수유 30g
- 다시마국물 2컵, 간장 3큰술, 조청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약간



### △만드는 법

- ①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0.5cm 정도의 두께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쳐낸다.
- ② 냄비에 다시마국물과 간장, 삶은 연근을 넣고 국물이 반으로 줄어들면 산수유를

넣어 졸이다가 마지막에 조청을 넣어 윤기를 낸 다음 참기름과 통깨를 넣는다.

### 간·신장에 좋은 '연근 조림'

송이버섯은 동의보감에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고 매우 향기롭고 술 냄새가 솔솔나며, 약효 성분은 그 특유의 향에 있다고 한다.

무기질 함량은 다른 버섯에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아 칼륨은 느타리버섯의 10배, 양송이버섯의 40배, 목이버섯의 3배이며 철분은 다른 버섯에 비해 10배 정도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 항암작용의 효능도 지니고 있다.

버섯중의 버섯인 송이는 그 맛과 향이 으뜸으로 전골요리를 하거나 구이를 해도 좋은데 송이로 요리를 할 경우는 되도록 자체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양념을 과하게 넣거나 국물은 진하게 우리지 않

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송이로 국을 끓여 먹을 때는 물에 채낸 애호박을 넣고 끓으면 송이버섯 찢은 것을 넣고 살짝 끓여 약간의 소금으로만 간을 하여 먹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송이의 향이 오랜 여운을 남기게 한다.

산수유 연근조림은 뿌리 채소가 제철인 가을에 많이 해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 간과 신장의 기능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 귀울림, 요통, 무릎통증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다. 또한 산수유의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방광의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이들의 야뇨증을 다스리며,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요실금 증상에도 효능이 있다. 산수유는 너무 일찍 넣어 조리하게 되면 연근의 형태가 퍼지게 되므로 중간에 넣어주는 것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사공), 공장, 일반 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경상도 : 010-9190-3350  
강원도 : 019-396-1110    전라도 : 011-248-6298  
충청도 : 010-8674-23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모범문학 송주(鄭柱)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문 漢·英·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승총림 수석사 초대방장 혜암(惠庵) 선사(禪師)의 범을 이은 모범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계승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註)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long (02)2632-8739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2번째 저서 출간!

## \* 바로보인 선문염송 23권

전30권 중 제2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담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현재 31종 62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